

목간 발굴 30년 목간을 고고학한다는 것

| | |
|--------------------|---|
| 저자 (Authors) | 이용현 |
| 출처 (Source) | 한국목간학회 학술대회 , 2007.1, 92-116(25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06775 |
| APA Style | 이용현 (2007). 목간 발굴 30년. 한국목간학회 학술대회, 92-116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42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목간 발굴 30년

-목간을 고고학한다는 것-

이용현(국립중앙박물관)

| 【 목 차 】 | |
|---|--|
| <p>프롤로그 -30년간의 진화-</p> <p>I. 본고의 서술 방향</p> <p>II. 목간 발굴과 연구</p> <p>1. 목간 발굴 小史</p> <p>2. 지역별 목간 출토 상황 및 관련 보고서 발간</p> <p>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의 근업(近業)</p> <p>III. 고고학적 연구</p> <p>1. 형식분류</p> <p>2. 규격과 형상 연구</p> <p>3. 목간의 재질</p> <p>4. 유구 속에서의 목간</p> <p>5. 관련 여러 과학과의 협력</p> | <p>IV. 연구 주변의 문제</p> <p>1. 목간 보존과학의 향상</p> <p>2. 목간 적외선 사진 촬영</p> <p>3. 목간 전시 30년</p> <p>4. 장기전시에 대한 채고와 복제품 제작</p> <p>5. 언론의 기여와 목간의 대중화</p> <p>V. 목간연구에 있어 고고학의 역할</p> <p>-맺음말을 대신하여-</p> <p>1. 신속한 발굴보고서의 작성</p> <p>-정보 공개의 의의와 책무-</p> <p>2. 출토지 예측과 발견시 응급조치 수칙</p> <p>3. 현장과의 대화</p> <p>에필로그</p> |

프롤로그 -30년간의 진화-

[1975년 8월 20일. 경주 안압지 발굴현장.]

고적정비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월성 동쪽 임해전이 자리잡고 있던 안압지도 일대정비 사업에 들어갔다. 연못 물을 빼내자 바닥에서 목간이 드러났다. 한국 최초의 목간 발굴이었다. 발굴담당자는 야장에 글자를 그려넣었다.

- 그로부터 31년이 지나고 -

[2006년 12월 19일. 함안 성산산성 발굴현장.]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40여명의 관계자가 운집. 적외선 사진 패널리 진행. 유물박스 속에 담긴 축축한 목간이 잠시 선을 보임. "...32개로 이루어진 유기물 복합층 가운데 목간 집중 출토 지점의 토층은 9개층이며 이 가운데 최상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발굴자의 열띤 설명). "...다섯 점이 더 출토되었어. 아까 낸 기사에서 33 점을 38점으로 고쳐줘..." (모기자의 전화 소리)

30여년간 목간 발굴은 목간 출토 점수의 증가에 비해 질적으로 가파른 향상을 보이고 있다. 최초의 발굴에서는 목간에 출토되었을 때, 층위같은 것에 대한 관찰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물론 저수지라는 특성으로 층위구별이 어렵거나 필요없었던 이유도 있었을지 모른다. 또 당시 발굴현장에서는 목간을 발굴 야장에 스케치하고 글자도 쓰거나 그려 넣었다.

훗날 보고서에는 목간의 출토상황에 대한 사진은 서너컷 정도 실렸지만 공반관계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목간사진이 실렸는데 모두 흑백사진이며 편집과정에서도 글자부분에만 중점을 두어서 글자가 없는 목간 상부와 하부가 잘려 실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 편집과정에서 목간을 “物”로서 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 발굴현장에 목간을 보기 위해 사계 인사들이 운집했다는 이야기는 과문이나 들리지 않는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목간에 대한 인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사전 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향각지에서 학자는 물론 매스컴 관계인사가 몰려들었다. 30년간 목간에 대한 인식의 진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다. 현장에서는 목간출토 층위가 자세히 운위되고 유구가 전체적으로 짜임새있게 체계화되고 있었다. 또한 적외선 사진 촬영으로 목간의 글자가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수습되고 있었으며, 목간 역시 증류수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었다. 처음 출토된 13점에 대해 의 글자 판독이 이루어진 뒤에도 20점이 추가 출토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장 설명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그 사이에 또 4점이 추가 출토되었다.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목간이 출토되고 있는 것이다. 30년의 격세지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목간 출토의 증가는 발굴 현장에서 목간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지 않을까 한다. 현장에서의 인식이나 주위에 의해 역사를 바꾸는 목간이 되기도 나무조각 혹은 쓰레기가 되기도 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I. 본고의 서술 방향

이 땅에 목간이 발굴된 지도 어언 30년이 넘어섰다. 그 간 목간 출토와 연구는 특히 근년 가파른 향상을 보여, 30년 이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이같은 30년간의 진화는 문헌학 혹은 역사학, 서예학, 언어학 혹은 국어학, 그리고 고고학 등 각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木簡을 考古學한다’는 것은 목간을 物으로써 다루는 조사하고 고찰하는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 짧게는 목간을 고고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길게

는 현장에서의 발굴, 보고서 작성하고 고고학적 연구 뿐만 아니라, 보관과 전시까지도 포괄한다. ‘목간’하면 글자자체에만 집중하기 쉽다. 실제 30년간의 연구를 봐도 그렇다. 그런데 목간은 동시에 유물이기도 하다. 즉 목간은 사료와 유물의 양면을 공유하고 있다. 목간의 글자의 의미가 중대함은 말할 나위 없지만, 그 글자는 物로서 목간의 어떠한 국면에 위치하는가 역시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物로서 목간에 대한 고찰은 목간이 어떻게 제작되었으며, 당시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목간이 어떻게 연구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 발굴은 통상 박물관이나 연구소 등 발굴기관에서 행한다. 여기에는 발굴, 보존처리, 촬영, 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세간에 공표, 보관 및 전시 등 일체의 행위가 관련된다. 고고학 주변도 또 종합적으로 개략적이거나 둘러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목간 고고학 30년을 총괄하고 금후 이 방면 연구의 재료로 삼고자 하다.

II. 목간 발굴과 연구

1. 목간 발굴 小史 ¹⁾

먼저 1975년 한국에서 최초로 목간이 출토된 이래 30여년간 목간 발굴의 여정을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1970년대

한국에서 목간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75년 8월 20일, 경북 경주 안압지에서였다. 1971년 수립된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안압지 발굴을 통해 함께 51점의 목간이 수집 보고되었다. 이에 관한 종합적 조사보고서는 3년 뒤인 1978년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이루어졌는데(문화재관리국, 1978)²⁾, 목간 분야의 보고는 이기동에 의해 이루어졌다(이기동, 1979). 이것이 한국 최초의 목간 보고서이며, 향후 보고서의 전형이 되었다. 한편, 사계에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발굴보고서에는 지건길이 작성한 목간메모도 있다(문화재관리국, 1978).

(2) 1980년대

- 1) 이 부분의 기술은 이미 발표한 줄고 「韓國における木簡研究の現状」(『韓國出土木簡の世界』심포지움자료, 2004년 1월 24일,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소)를 바탕으로 본고의 체제에 맞추어 약간 수정하였다. =>수정하였으며, 2004년 이후 최근까지의 변화상을 추가하여 개고하였다.
- 2) 순서는 뒤바뀌지만, 2장1절의 인용 논문은 2장2절의 그것을 참조바람. 2장의 인용문헌은 보고서 류를 중심을 하였다.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경우는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실었다. 고로 연구문헌을 모두 열거한 것은 아님에 유의바란다.

전북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길이 약 17.5cm 폭 약 5cm 의 막대형 목간(이른바 “고”)이 출토되었다. 네 면에 글이 쓰여 있었다. 당초 학계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보고서가 간행된 후에도 연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1983년 충남대 박물관은 충남 부여 관북리 즉 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 왕궁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행하였는데 연지에서 2점의 목간이 나왔다. 발굴당시 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부가 파임형인 완형 1점은 목흔이 확인되었다. 최초의 백제목간 출토의 순간이었다(충남대박1983).

1984년과 1985년에 경주 안압지에 가까운 월성해자에서 약 30점의 목간이 발굴되었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2006년말에 간행되었다(국경연2006). 이미 그 상당부분은 사진집에서 소개되었다. 6세기에서 7세기 중엽에 걸치는 각종 다양한 목간으로 구성되었다. 牒을 둘러싼 4면형 막대형, 가로로 기다란 것(이른바 “橫材목간”) 등 다양한 형태에 문서의 수수, 약물과 관련, 6부관련, 이두 혹은 속한문 등 다양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식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올해부터 그 연구의 심화가 기대되고 있다.

(3) 1990년대 전반

1990년대에 들어와 목간출토가 급증하게 되었다. 경기 하남시 춘궁동(발굴당시는 경기 광주 춘궁리) 이성산성의 저수지에서 1990년에 12점, 2차 저수지에서 다음해인 1991년에 9점, 모두 21점의 출토를 보았다(한양대박1991,1992).

신라 목간이 왕도 경주를 벗어나 지방에서도 다량 출토된 첫 예였다는 점에서 발굴사적 의의가 깊다. 보고서에는 서체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戊辰”이라는 간지가 나와 대체로 그 년대는 대체로 608년으로 보고 있다.

1994년 동국대경주캠퍼스 박물관에 의한 경주 황남동 376번지 사택 신축부지 조사중에 목편 3점이 출토되었다. “椽”이란 글자가 보여 창고와 관련해 주목되었다.

1995년에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한 궁남지 조사중에 목제품과 함께 목간이 2점 출토되어 곧바로 약식보고가 이루어졌다(최맹식,김용민1995). 한국 최초의 약식 개보 및 속보라는 의미를 갖는다.

(4) 1990년대 후반

1996년 9월 이성시에 의해 한국목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이성시1999). 이것이 한국 목간 전체에 대한 최초의 정리라는 면에서 고고학사상 의미 깊다. 여기서는 당시까지 출토 보고된 경주 안압지, 부여 관북리, 경주 월성해자, 하남 이성산성의 4개소에 더해 당시 최신 자료였던 부여 궁남지, 함안 성산산성, 경

주 황남동을 넣은 7개소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성시의 논고는 문헌사 뿐만 아니라 고고학에도 중요한 업적이었다.

1998년에는 쌍북리 102번지 일대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충남대 박물관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백제 사비시대의 생활유적에서부터 고려시대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저습지 개흙층 그 중 표토하 3m에서 백제시대 水路, 우물 등이 노출되었고, 수로 내부와 주변에서 칠기 등 목제품, 명문 백제토기, 인각와, 목제자 등과 함께 목간 2점이 출토되었다(충남대박물관).

이와 함께 1999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및 한국고대사학회 공동 주최에 의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³⁾, 이는 목간에 관한 한국 최초의 심포지움이자 국제학술대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깊다. 이를 통해 고고학계에도 목간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인식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궁남지 1차 목간에 대한 보고서가 간행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1999). 비록 1점의 목간이었으나, 그 때까지의 목간 보고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보고서였다. 여기서 한국 최초로 제침축의 개념, 목간에 있어서 尺, 즉 길이의 의미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5)2000년대 전반

2000년 4월에는 충남 부여 능산리에서 “奉天”이란 글자가 새겨지고 또 목서도 있는 4면체 막대 모양에 남근을 새긴 목간을 비롯 5-6점이 발굴되었다(국립부여박2000). 2000년 12월에는 하남 춘궁동 이성산성 제8차 발굴 보고서가 간행되었으며 목간에 대해서도 정식 보고되었다(한양대박2000). 보고자는 유실되어 근거는 없어졌지만 발굴시의 여러 상황으로 보아 고구려 목간설을 강변하였다. 이는 후에 두고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목간 발굴에 있어 초동단계에 반드시 사진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준 발굴이었다.

2001년 7월 15일에 부산대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김해 봉황동에서 4면체 막대형 목간 1점이 출토되었다. 논어 공야장의 일부가 적혀 있었다(부산대박 2001).이는 한국 최초의 논어 목간, 경전 목간의 출토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경주 황남동 목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서식의 형식, 원형의 복원, 창고와의 관계가 논의되었다(이용현,김창석 모두 2001). 이는 이듬해 곧바로 보고서 간행으로 이어졌다.

2002년 12월에는 함안 성산산성 현장에서 더욱이 65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전 출토분과 마찬가지로 동문지 근방에서 나온 것이었다.

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한국고대사학회 『함안성산산성』(1999년12월11일,국립김해박물관). 여기서 발표된 논고는 후에 거의 수정없이 『한국고대사연구』 19(2000년)에 실렸다. 오늘날 한국목간학회의 모태는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것과 기능과 형태가 유사하며, 제침축으로 여겨지는 목제품도 출토되었다(창연2002). 2002년에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경남 창녕 화왕산성 내 연지가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목간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⁴⁾.

2003년에 안압지 보고서의 목간 관련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목간 출토지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출되었다(이용현2003). 2004년 6월에는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고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소가 후원하는 형태로 『한국고대의 목간』이란 본격 사진집이 출간되었다. 목간 실물크기의 컬러 및 적외선 사진이 호쾌하게 실렸다. 이어 2004년 하반기부터 창연 홈페이지에서 pdf파일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목간 고고학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발굴보고서가 간행된 뒤에야야 논문을 쓸 수 있는 관행은 이를 통해 목간 분야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다. 월성해자 목간과 관북리 목간, 능산리 목간의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6) 2000년대 후반기

2005년 6월 27일에는 또 다시 논어목간의 출토가 공표되었다. 이번에는 인천시 계양구 소재 삼국시대 고대성곽인 계양산성에서였다. 5각 막대목간으로 이번에도 우연히 김해 봉황동의 그것과 같이 논어 공야장의 일부가 쓰여 있었다. 발굴자인 선문대 고고연구소 측은 목간과 공반된 짐수정의 것이 3-4세기 한성도읍기 백제의 목간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서기 3,4세기경 한성도읍기 백제시대 지방에서 논어를 학습한 사실을 알려준다고 주장되었다(선문대연2005).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 6월에는 『(개정판)한국고대의 목간』을 출간하였다. 이는 종전의 것에서 논고를 교체하고 일부 목간을 제외하였는데, 종전의 것의 축소판 사진집이라 할 수 있다. 개정판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정보가 소개되었다. 동 연구소에서는 또 11월 27일부터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의 함안성산산성 홈페이지에서는 이들 목간에 대해 3천 800만화소로 촬영한 고화질로 성산산성 목간 제2차 공개분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또 12월 19일에는 추가 출토 목간 점수 38점 중 10여점을 현장설명회에서 공개하였다.⁵⁾ 대체로 2000년대 이후 목간의 출토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충청지역에서 2개소에서 목간 약간 점, 인천 계양산성에서 새로 1점의 추가 출토가 풍문이 있는데 그 구체상은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대의 목간은 아니나 신안해저 목간 328점이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사진집 기준으로 하면 321점이 출토되었으며, 여기에 2006년말 추가 보고된 38점을 추가하면 모두 359

4) (개정판)사진집, p244.

5)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 성산산성 11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6년12월

점의 목간의 출토가 세간에 공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숫자는 동시에 각 기관에서 집계한 목간 점수이다. 복원함에 따라 또 목간이 아닌 것도 감안하면 이보다 조금 줄어들 것이지만, 대체로 각 기관 집계 점수로 2006년말 현재 한국 고대의 목간은 359점에 이른다.

2. 지역별 목간 출토 상황 및 관련 보고서 발간

지역별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소개하기로 한다. 발굴보고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유 적 | 출토점수 | 발굴자 |
|---|------|-----------|
| 1. 인천 계양산성 | 1점 | 선문대고고학연구소 |
| 2005년(1차) 1점 출토 | | |
| 2005년 6월 27일 「인천 계양산성 동문지대 집수정 출토 목간 보존처리 결과 보고」(보고회 자료)선문대학교 고고학연구소 | | |
| 橋本繁 「古代朝鮮における『論語』受容再論」 『古代韓国木簡の世界Ⅲ』 와세다대학 국제심포지엄, 2006년1월 ⁶⁾ | | |
| 5각 막대목간으로 논어 공야장의 일부가 쓰여 있다. 정식보고서는 미간이나 목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다. 보도자료의 사진이 양호하다. 보도자료에서는 백제목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신라목간일 가능성이 있다. 하시모도의 논고가 있다. | | |
| 2. 경기 하남 이성산성 | 27점 | 한양대박물관 |
| 1990년(3차)12점, 1991년(4차) 9점, 1999년(7차) 6점, 2000년(8차) 1점 출토 | | |
| 『이성산성(제3차),(제4차),(제7차),(제8차)』 1991,1992,2000,2001년, 한양대박물관 | | |
| 모두 27점의 목간이 출토되었으며, 정식 보고는 모두 완료되었다. 이 중 8차 발굴 1점에 대해 고구려목간설이 보고서에서 주창되고 있는데, 판독이 불안정하여 고구려로 보기 어렵다. 모두 신라 목간으로 보인다. | | |
| 주보돈 「이성산성출토 목간과 도사」 『경북사학』 14, 1991년 | | |
| 김창호 「이성산성출토 목간의 연대 문제」 『한국상고사학보』 10, 1992년 | | |
| 이도학 「이성산성출토 목간의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12, 1993년 | | |
| 이성시 「韓國の木簡」 『木簡研究』 19,1999년 | | |

6) 참고 문헌 소개에서 큰 글씨는 보고서 혹은 준보고서이고, 작은 글씨는 관련논문이다.

한양대박물관 『이성산성(발굴20주년특별전)』 2006년
재판독되어 종래의 朋이 明으로 임하고 있다. 사진집, 발굴보고서, 2006년 한양
대박물관의 특별전 도록 사진을 참조할 수 있다.

3. 부여 관북리 9점 충남대박물관(1983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2년)
1983년 2점, 2002년 7점 출토
충남대박물관,충남도청 『부여관북리백제유적발굴보고(1)』 1985년12월
이용현 「궁남지 출토 목간의 내용과 성격」 『궁남지』,1999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윤선대 「백제 사비도성과 ‘峒夷」 『동아고고논단』 2,2006년,(재)충청문화재연구원
1983년 보고 2점은 간행되었으며, 2002년 발견 7점 역시 근간예정이다. 모두 사
진집을 참조할 수 있다. 2002년 7점 중 1점은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이다.

4. 부여 쌍북리 2점 충남대박물관
1998년 2점 출토
충남대박물관,대한주택공사충남지사 『부여쌍북리백제유적발굴보고(2)』 1998년

5. 부여 능산리 24점 국립부여박물관
2000년(6차 조사) 6점, 2001년(7차 조사) 17점,2002년(8차) 1점 출토
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지도위자료]부여능산리사지(6차)』 2000년4월
박중환 「부여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목간」 『박물관신문』 352, 2001년10월
박중환 「부여능산리사지발굴목간 예보」 『한국고대사연구』 28, 2002년12월
박중환 「부여능산리사지발굴조사개요 -2000년에서 2001년의 조사내용-」 『동원학
술논문집』 4, 2002년12월
박경도 「능산리사지 8차 발굴조사」 『동원학술논문집』 5, 2003년11월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의 문자』 (특별전 도록) 2003년
김영욱 「백제이두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2003년8월
近藤浩一 「扶餘陵山里出土木簡と百濟都城關連施設」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5,2005년
大竹弘之 「百濟の古都(木簡の發見)」 『古代日本と百濟』 2002년3월
平川 南 「扶餘陵山里木簡と道嚮祭」 『古代韓國木簡の世界Ⅲ』 와세다대학 국제심포지
엄,2006년
윤선대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 목간의 재검토」 『동국사학』 40,2004년

목간에 관해서는 모두 보고서 미간행. 2007년 초 간행 예정이라고 한다. 발굴담
당자로서박중환 및 박경도의 논고가 준보고서에 해당하나,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얻기는 어렵다. 8차 발굴 목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진집과 2003년 개최 특별전 도

록에 사진이 실려있다. 김영옥은 능산리 목간 중 1점에 대해 시가설을 주장하였고, 끈도는 능산리 목간 전체를 소묘하였다. 오오다케는 능산리 목간의 유구와 토층에 대해 설명하였다. 남근목간과 도교와의 관계에 대해 히라카와와 윤선태는 논하였으며, 제8차 발굴 목간에 대해서는 끈도와 윤선태가 논하였다. 비록 발굴 보고서가 간행되지는 않았지만 상기 논고 및 사진집, 도록에 의해 목간의 전모를 알 수 있다. 보고서 간행의 시점을 잃은 경우라 할 수 있다.

6. 부여 궁남지 3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 1점 1999년 보고서 간행
 2001년 국립문화재연구소 2점 2001년 보고서 간행
 최맹식, 김용민 「부여궁남지 내부 발굴조사 개보」 『한국상고사학보』 21, 1995년 1월
 이용현 「궁남지 출토 목간의 내용과 성격」 『궁남지』, 1999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김재홍 「목간」 『궁남지Ⅱ』, 2001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보고서는 모범적으로 모두 완간되었다. 단 2001년 보고서는 사진집에 누락되었
 다. 사진은 양호하지 못해 2001년 출토 목간2의 경우 재촬영 재판독이 필요하다.

7. 전북 익산 미륵사지 1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5년 1점 출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바를조사보고서Ⅱ-』, 1996년
 전북익산지문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997년
 사진집에서도 사진을 볼 수 있다. 학계에 공표되고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목간
 이다.

8. 경북 경주 안압지 51점 경주유적발굴조사단(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전신)
 1975년 51점 출토
 문화재관리국 『안압지』 1978년
 이기동 「안압지에서 출토된 신라목간에 대해」 『경북사학』 1, 1979년
 이용현 「경주 안압지 출토목간의 기초적 검토」 『국사관논총』 101, 2003년
 이기동의 논고는 보고서에 실린 것과 같은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외에 윤근일과
 지건길의 글이 있다. 필자의 글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성하고 보고서에 보이는 목
 간의 출토지점을 정리한 것이다. 안압지 목간에 대한 연구성과는 많지만, 근년에는
 다음과 같이 안압지 목간 연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문기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 본 신라의 궁정업무」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년
 윤선태 「안압지 목간과 신라 궁정 생활」 한국사연구회 월례발표회(2006년 11월)
 이용현 「안압지 출토목간과 신라 동궁 주변」 한국역사연구회 기획발표회 『목간과 한
 국고대사회』 (2006년 12월)

橋本繁 「안압지 출토목간의 석독」 『신라문화연구』 창간호(2007년3월),국립경주박물관,개재예정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2007년 적외선사진 선본 자료집을 간행예정이며, 보고서가 간행된 지 30년이 되어가서 재보고서 혹 재연구가 필요하다.

9. 경북 경주 월성해자 26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85년 3점, 1986년 19점, 1989년 1점, 1993년 1점 출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월성해자Ⅲ』 2006년(목간 부분 이용현 집필)
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년
이미 적외선 사진과 칼라사진은 사진집에 공개된 바 있다.

10. 경북 경주 황남동3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9년 3점 출토
동국대경주캠퍼스박물관 『경주황남동376통일신리시대유적』 2002년6월
이용현 「경주황남동376유적출토 목간의 형식과 복원」
김창석 「황남동376유적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두 논문 모두 『신라문화』 19, 2001년
두 논문이 보고서의 기본원고가 되었다. 사진집 등에 사진자료가 양호하다.

11. 경남 김해 봉황동 1점 부산대학교 박물관
2001년 1점 출토
부산대박물관 「김해봉 황동408-2,10,11번지유적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1년7월
이용현 「관료」 『통일신라』 (특별전도록)2003년
東野治之 「近年出土の飛鳥京と韓國の木簡」 『古事記年報』 2003년1월
橋本繁 「金海出土論語木簡と新羅社會」 『朝鮮學報』 153,2004년
아직 정식 보고서는 간행되고 있지 않다.

12. 경남 함안 성산산성 160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2년 6점, 1994년 21점,2000년 2점,2002년 92점,2003년 1점,2006년 38점 출토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성산산성』 1999년, 『함안성산산성Ⅱ』 2004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성산산성(11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6년
2003년 이전 출토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완간되었으며, 사진집에 양호한 사진이
실려 있다. 2006년도 출토분의 일부는 현장설명회 자료로 공개되었다.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19,2000년(성산산성 목간 특집호)
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용도」 『진단학보』 88,1999년
이용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한국의 고대목간』 2004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이수훈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稗石과 負」 『지역과 역사』 15,2004년
박종기 「한국 고대의 노인과 부곡」 『한국고대사연구』 43,2006년

전덕재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통해서 본 신라지방통치체제」

이경섭 「함안 성산산성 출토 제침축에 대하여」 두 논문 모두 한국역사연구회 기획발표, 2006년 12월 이 방편은 자료 공개와도 맞물려 가장 연구가 활발하여 위 논문 등 다수가 있다. 2006년 신출분에 더하여 금후 연구진전이 기대된다.

한편 목간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논고들도 있다⁷⁾. 이상 지역별 목간발굴 현황과 함께 보고서 간행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주월성해자와 부여 능산리와 관북리는 2006년말 간행되거나 2007년초 간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적외선 촬영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재보고서 혹은 새로운 사진집을 간행하거나 새 촬영 pdf공개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면에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안압지 목간 적외선 사진촬영 및 자료집 발간은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기간에 여러 제반 문제로 인해 목간관련 보고서의 간행이 지체되기도 하였다. 세간의 수요에 부응하여 목간에 한해서는 속보나 개보, 혹은 약보고서를 먼저 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면에서 1995년 발굴과 동시에 행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개보가 하나의 모범이 된다.

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의 근업(近業)

보고서는 아니지만 자료집으로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것이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된 『한국의 고대목간』(‘사진집1’로 약칭)과 『(개정판)한국의 고대목간』(‘사진집2’), 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들 책의 pdf자료이다. 여기에는 최대 319건의 목간 사진이 실려있다. 성산산성-이성산성-김해봉황동-경주월성해자-경주안압지-경주박물관부지-경주황남동-부여관북리-부여궁남지-부여쌍북리-익산미륵사지의 순으로 실어 신라 지방목간-신라 중앙목간-백제목간의 순으로 등재하였다. 이 가운데 김해봉황동, 경주월성해사, 부여관북리 다수는 사진집 간행 현재 정식 보고서가 간행되어 있지 않다. 또 이미 보고서가 간행되었던 이성산성, 경주안압지, 경주박물관부지, 경주황남동, 부여관북리 일부, 부여 쌍북리에 있어서도 정식보고서에 적외선 사진은 게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같은 점에서 사진집은 목간과 관련된 기존의 보고서를 보완하거나, 보고되지 않은 목간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진집 간행 후, 보고서 미간행 목간에 관련된 논고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이같은 점에서 사진집은 목간연구 지각변동의 진원지이다.

7) 「韓國の木簡」(『木簡研究』19,1999년)을 비롯한 李成市의 일련의 역작이 있으며, 「경주지역 출토목간의 식문」(한국고대사유희학회 발표문, 2004년 11월)등 손환일의 서예와 판독면에서 업적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는 “함안 성산산성”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고 당 연구소가 발굴한 성산산성 목간에 대해 와세다대학과 협력하여 3천8백만 화소의 고화질 칼라 및 적외선 사진을 공개하여 목간 자료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자료 공개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크다. 보고서 간행과 정보 공개의 한 형태에서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Ⅲ. 고고학적 연구

목간이 문자적 사료와 목제 유물이라는 양면을 갖고 있는 덕에 목간연구사를 일괄할 때 문헌적 연구와 고고학적 연구를 떼어 내어 정리한다는 것은 어렵다. 본고에서는 순전히 기획분담상의 이유로 고고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소묘해본다. 物적인 측면에서의 목간의 연구는 목간의 형식분류와 재원, 재질, 척과 관련된 논의 및 복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형식분류

목간의 형식 분류의 효시는 지건길의 그것이다.⁸⁾ 그는 안압지 목간을 인수한 뒤 그 형태를 平板과 筒形으로 구분하였다. 이른바 훗날의 파임형이나 홀형을 평판으로, 막대형을 통형으로 구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고대의 목간, 또 한국의 목간은 아니지만 신안해저에서 인양된 목간에 대한 윤무병의 형식분류가 있다.⁹⁾ 신안 목간은 모두 짐의 꼬리표인데 이를 상부의 모양에 따라 A,B,C,D,E,F로 나누고 하부의 모양에 따라 abcdefg로 분류하였다. A,는 오늘날의 파임형이고, B는 구멍이 있는 것을 일컬으며, C는 홀형, D는 뿔족형(규두형)에 해당한다. E,F는 파손된 파임형에 해당하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 또 목간 자체의 용도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던 점에 인식의 한계와 대상이 국내목간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긴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최초로 목간의 형식의 분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같은 연구는 이후 학계에서 거의 주목은 물론 인식되지 못하였다.¹⁰⁾

1999년 성산산성 목간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목간의 형식분류가 새롭게 주목되었다. 여기서는 하찰(荷札), 부찰(付札), 단책(短冊)형과 같은 용어들이 소개되었다.¹¹⁾

8) 앞서 인용한 지건길 논고.

9) 윤무병 「목패」 『신안해저유물Ⅱ』 1984년, 문화재관리국

10) 윤무병의 분류가 국내 목간학계에서 인지도는 2002년, 지건길의 분류가 인지도는 2003년에 필자에 의해서였다. (줄고 「신안해저발견 목간에 대하여」 『고려조선의 대외교류』 2002년, 국립중앙박물관; 「경주 안압지 출토 목간의 기초적 검토」 『국사관논총』 101, 2003년, 국사편찬위원회) 그러나 그 후에도 학계에서 그다지 이에 대한 주목이 없다.

11) 이는 일본 목간 학계에서 고래로 쓰여오던 용어로, 1999년 성산산성 국제심포지엄 패널이던

이후 학계에서는 이같은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상부 ‘切り込み’란 용어는 “V자홈(이 파임)”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¹²⁾ 2002년에 박중환은 목간의 형태를 板狀, 四角柱狀, 圓柱狀으로 또 글씨가 쓰인 양상에 따라 표면목서, 양면목서, 3면목서, 4면목서와 1행서, 2행서, 3행서로 나누었고, 또 懸垂用 혹은 定置用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¹³⁾ 2004년 간행된 목간 사진집에서는 “1면목서목간, 2면목서목간…”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2006년말 이용현은 목간을 “파임형” “홀형” “막대형”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⁴⁾ 즉 학계에서는 형태에 입각한 분류와 기능에 대한 분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단책형(短冊形)’ ‘쇄설(瑣屑)’¹⁵⁾과 같은 위화감있는 용어는 배제되어 가고 적합한 우리말 용어가 모색되는 등 개발도상에 있다. 목간의 형식분류에는 그 기능은 물론 외형에 의한 분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면에서 내용표기 위주인 중국의 간독 표기와 외형 정보까지 기호화한 일본목간학회의 목간형태 분류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¹⁶⁾

2. 규격과 형상 연구

목간의 길이, 폭과 두께 즉 재원을 비교한 연구는 1999년 필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백제목간에 있어 35cm의 의미와 尺을 연계시켜 설명하였다.¹⁷⁾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은 김재홍에 의해 계승되어 새로이 25cm가 타진되기도 하였다.¹⁸⁾ 또 목간의 길이와 폭에 따른 분류가 분류가 시도되기도 하였다.¹⁹⁾ 이같은 작업을 이어 이경섭

平川 南(「일본고대목간 연구의 현상과 신시점」 「성산산성 출토 목간」), 李成市(「한국목간 연구의 현황과 함안성산산성출토의 목간」 상기 논문은 모두 『한국고대사연구』 19, 2000년 수록)에 의해 쓰이고 그대로 번역되었으며(역자 李鎔賢), 이후 한 동안 학계에서 쓰였다.

12) 윤선태, 필자 등 다수.

13) 박중환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적 특성」 『국립공주박물관기요』 2, 2002년, 국립공주박물관

14) 줄고 「경주 안압지 목간과 신라 동궁 주변」 『한국역사연구회 특집기획발표 “목간과 한국고대 문자 생활”』, 2006년 12월 2일 발표문

15) 2006년 12월 6일자 연합뉴스 “백제의 대팻밥 파피루스 발견”에서 김태식은 종래의 “쇄설(일본 말로 kesurikuzu)”을 “대팻밥”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대팻밥이란 역의 타당성을 차치하고 쇄설이 일반에 위화감을 나타내는 예이다.

16) 『木簡研究』 장간호 (일본 목간학회, p7. 1979년). 상부와 하부의 형태에 의해 세분하는 분류다. 예를 들면 홀형은 011형식, 홀형이면서 측면에 구멍이 있는 것은 015형식, 소형 말 모양은 021형식, 소형 말 모양 형식이면서 상단을 모서리를 조정한 것은 022형식, 장방형의 목재 양단 좌우에 파인 것은 031형식, 장방형 목재로 한쪽의 좌우가 파인 것은 032형식…용도미상의 목제품에 목서가 있는 것은 065형식, 부식이나 파손으로 원형을 알 수 없는 것은 081형식, 목간을 깎아낸 부스러기는 091형식.

17) 줄고 「6 백제의 문서행정과 목간관련 칙에 대한 전망(부여 공남지 출토 목간의 연대와 성격)」 『공남지』 1999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8) 김재홍 「4 목간의 성격과 의의(부여 공남지유적출토 목간과 그 의의)」 『공남지 II』 2001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 줄고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국립박물관 동원학술회의』 2002년 12월 발표문집. 이후 활자화된 논고에는 이를 실지 않았다.

은 2차 출토분까지 합하여 성산산성의 그것을 데이터화하였다²⁰⁾. 또 박중환은 한국 고대 목간 전체를 데이터화하고, 한국목간에는 정교한 수준의 규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²¹⁾.

이상의 성과는 부분적으로 데이터의 수집이나 통계처리 및 해석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목간을 문자뿐만 아니라 형상의 면에서도 연구하려 한 점을 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목간의 재원에 관한 연구는 모색단계에 있다.

漢簡에서는 문서목간에서 명령의 등급에 따라 길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본의 목간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문서목간이 적은 한국에 경우 尺과 관련하여 길이를 논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문서목간이나 비문서목간, 또 시기적 지역적인 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데이터처리하는 등, 목간의 기본인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방면의 연구는 목간 각각의 성격이 규명된 시점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서로 다른 조각으로 보고된 것도 이후에 살펴보면, 서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형의 형태상 그대로 조각과 조각을 접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따금 내용상의 연결성을 갖는 것을 추정할 수 있기도 하다. 황남동 목간의 경우가 그것이다. 서식의 동일성과 앞뒷면의 유사성, 폭의 일치로 보아 원래 2조각으로 보고된 이 목간은 동일 목간의 일부이다²²⁾.

최근 성산산성 목간의 경우 사진집 번호 61+75+90이 하나임을, 또 62+66가 하나임을, 45+95가 하나임을 밝혀내는 개가를 올렸다²³⁾. 이같은 조각난 목간의 형상 복원은 원래 모습을 규명함에도 중요함과 동시에 폐기 및 분절의 공정을 이해함에도 중요하다. 한편 전체 텍스트를 알 수 있는 경전 목간에 있어서도 전체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또 파손된 상태로 발견된 김해 봉황동 논어 목간의 경우 경전전체와 목간에 남아있는 내용을 계산하면, 현재의 길이 20.9cm의 원래 길이는 그 6-7배에 해당하는 125.4-146.3cm의 장대한 목간을 상정하는 설도 있다²⁴⁾.

형상과 규격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갖춰진 신라의 경우 단연 막대형 목간의 존재가 그 특징이며, 소형 나무를 사용하는 데, 또 재활용을 의도한 테서 기인하는 면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 목간의 폭은 1행서보다는 2행서쪽이 더 넓은 점, 각각 유적별로, 시기별로 목간의 재원에 차가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²⁵⁾ 형상에 대한 연구는 상기 형식분류와 연계되는 바, 목간 보고서나 연구

20) 이경섭 「성산산성 출토 하찰목간의 제작지와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37, 2005년

21) 박중환,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적 특성」, 앞의 책(판권은 2002년 10월 발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postdating으로 실제는 2003년초이다)

22) 줄고 「황남동376출토 목간의 형식과 복원」 『신라문화』 19, 2001년,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성산산성 11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6년.

24) 橋本繁 「金海出土論語木簡と新羅社會」 『朝鮮學報』 153, 2004년

25) 줄고 「新羅木簡の形狀と規格」 『古代韓國木簡の世界』 2005년, 早稲田大学심포지엄 발표문.

에 문자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1999년말에 와서였다(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한국고대사학회1999,윤선태1999,이용현1999). 특히 국내에서 제철축이나 이른바 “觚”가 의식되게 되면서²⁶⁾ 이 방면의 형식 연구 역시 진전되고 있다²⁷⁾.

3.목간의 재질

목간의 재질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99년에 와서였다. 1999년말 열린 성산산성 목간 국제심포지엄에서 기획발표된 국내 목재 분석 전문가 박상진 교수의 분석이었다. 여기서는 당시 목간 중에서 성산산성 목간 27점과 궁남지 목간 2점이 분석되었다. 성산산성 1차분 중 목간으로 판정되는 25점 중 활엽수가 1점, 밤나무 1점, 나머지 23점이 소나무였다. 궁남지 목간은 소나무였다²⁸⁾. 육안 관찰에 의한 목리 즉 연륜배열 분석과 수종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성산산성 목간이나 궁남지 목간에 있어서는 후에 목간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여 수종에 따라 목간소유자를 상정하기도 하였다.

2004년에 2차 보고분 65점이 추가로 수종분석되었다. 이에 의하면 소나무가 53점, 전나무가 3점, 버드나무류 4점, 밤나무 3점, 굴피나무와 느티나무류 각각 1점이었다²⁹⁾. 이외 목간의 수종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의 데이터만 갖고 본다면 적어도 신라의 목간은 소나무가 많이 쓰였다고 할 수 있으며, 또 枝材가 많은 편이다. 고려나 조선 시대에도 건축자재로서 활엽수가 선호되었다. 이는 참나무가 단단하고 건축자재로서 가공해 쓸만했기 때문이다.

고대 한반도의 식생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우점종이었다. 예를 들어 신창동 등 유적에도 도구는 참나무와 밤나무가 중심이었다. 소나무는 잣나무나 전나무와 함께 침엽수이다. 침엽수인 소나무가 목간에 애용된 것은 활엽수인 참나무나 자작나무에 비해 깎아쓰기 쉬운 무난한 소재였기 때문이었기 때문으로

26) 국내 목간에 대해 제철축이 처음 의식된 것은 줄고 「부여 궁남지 목간의 형식과 성격」 『궁남지』 1999년,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또 觚가 사용된 것 역시 줄고 『한국고대목간연구』 2001년, 고려대박사논문,p40에서 었다.

27) 제철축에 대해서는 함안성산산성 목간 2차 공개분에서 좀더 명확하게 되었는데, “利豆村”에 대한 판독 부분을 제외하고 몇 점에 대해 제철축설을 주장,제공한 것 역시 필자였다. 이후 제철축이란 용어가 상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정섭(전계 논고)에 의해 일본 제철축이 상세히 소개되기도 하였다. 觚 역시 필자에 의해 그 개념이 도입되어 윤선태(「한국 고대목간의 출토현황과 전망」 『한국의 고대목간』 2004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p359)와 선문대고고연구소(전계 지도위원회 자료)에 의해 한국 고대 목간에서 觚 목록이 집계되기도 하는 등 이 방면 연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28) 박상진 「출토목간의 재질분석-함안성산산성 출토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9,2000년.

29) 박상진·강경애·조규아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수종」 『한국의 고대목간』 2004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보인다. 참나무는 결이 갈라지고 가공하기가 까다롭다. 비교적 직경이 작은 소나무는 작아서 가공하거나 쓰기가 쉽고 잘 갈라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사의 재료로서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간에 소나무 애용 문제는 금후 연구과제이다.

4. 유구 속에서의 목간

선문대 고고연구소에 의해 한국 최고의 목간 출토가 세간에 알려졌다. 정식 보고서의 출간을 기다려야겠지만, 발굴단에 문의한 바 또 현장설명회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반 유물로서 백제 단경호가 중요한 근거가 되어 출토 논어 목간은 3-4세기대의 한국 최고의 목간이자 백제 목간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다는 왕인과 연결되는 논리로 까지 전개되고 있었다. 기실 목간이 출토되는 곳은 대개 습지로 밀폐된 곳이어서³⁰⁾ 토층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토층자체가 불안한 곳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여러곳에서 목간이 출토되었지만 주변 공반유물과의 관계를 토대로 편년된 곳은 거의 없다. 유일하게 함안 성산산성 발굴이 11차 발굴만에 토층윤관잡기에 성공해가고 있을 뿐이다. 부산대 박물관이 발굴한 김해 봉황동 논어 목간의 경우도 당초 발굴자측은 목간포함층을 3-5세기로 주장되었었다. 봉황동 논어 목간의 경우, 신라의 국학과 관련있으며 빨라도 신라 통일기를 넘지 못한다는 설이 정착되어가고 있다³¹⁾. 계양산성의 경우도 불안한 토층을 근거로 목간을 3-4세기로 보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가질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사료적으로 불안한 일본서기나 고사기의 왕인 전설을 근거로 비약하여 고고학적 유물과 목간을 해석하였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기실 백제에서 일본에 오경박사를 수출하는 것은 6세기 들어와서이다. 더군다나 계양산성의 논어 목간은 정황으로 보아서는 신라의 것일 공산이 커 보인다.

고고학은 어디까지나 고고학 자체의 논리로 유물과 유구를 해석해야 하며, 문헌에 이끌려서는 안될 것이다. 문헌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목간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유구 혹 유적 전체의 해석까지 목간에 의존하려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한편, 안압지 목간은 지난날 목간 자체의 문자에만 매달려 온 경향이 있다. 근년에 공반된 목간 이외의 명문 및 묵서자료와의 연관속에서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더 나아가 안압지 유구, 경주 왕경 유적 전체의 틀속에서 목간의 의미를 재음미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³²⁾. 목간 역시 유

30) 중국같은 경우 니야 등과 같이 건조지역에서도 목간이 출토되는데,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건조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31) 필자(『목간』 『통일신라』 2003년)와 橋本繁(2004년).

32) 안압지 목간을 함께 출토된 문자자료 및 공반유물 등 제반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안압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2007년 1월 20일 신라사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구 속의 여러 유물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5. 관련 여러 과학과의 협력

고고학 일반에서 문헌사학, 문화인류학, 민족지와 민속학, 미술사학, 건축사학, 금석학 및 서예학 등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간 발굴 및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고고학은 보존과학과 사진학, 문헌사학, 문화인류학·민속학, 금석학·서예학, 국어학, 한문학은 물론 주변 나라 즉 일본과 중국의 목간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 나라의 목간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최초 안압지 목간 연구(이기동1978)에서부터 인식되었다. 그것이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된 것은 1999년이었으며(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한국고대사학회1999,윤선태1999,이용현1999), 제침축에 대한 인식 역시 이같은 비교연구에서 가능하였다.

근년에 들어서는 아예 어떤 목간에 대해 분석할 때 일본고대목간의 그것과 직접 분석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현재로서는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일본고대사에 대한 기본인식없이 일본목간 일변도의 비교연구로만 정도 되는 것 역시 신중해야할 바이다.

지리적 문화적 흐름으로 보아 한국목간에는 아마도 중국목간의 성격과 일본목간의 그것이 공존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중국 목간에 대한 주목 및 비교연구가 진전시켜 동아시아 목간이란 균형잡힌 시좌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목간학의 정립을 위해서 목간고고학은 고고학과 금석학 혹은 문자자료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역사학으로서의 고고학이든 인류학으로서의 고고학이든 고고학 본래의 기초는 출토사실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물질문화로서 목간을 조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物 즉 목간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³³⁾는 말과 같이 목간의 확보 및 物로서 본연의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 연구를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V. 연구 주변의 문제

1. 목간 보존과학의 향상

유물보존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1970년대이다. 거슬러 올라가, 해방이후 첫 발굴이자 국립박물관이 주관하였던 1945년 5월 호우총 발굴조사 종료 후 1년 뒤인 1946년 말에 있어서도 보존처리를 할 수 없어 유기물 유물이 스러져 가는 것

33) 菊池徹夫 「総論考古学の研究」 『考古学調査・研究ハンドブック3. 研究法』 1998년,p10.

을 눈 앞에 두고 그저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³⁴⁾ 최초로 발견된 안압지 목간의 경우는 전체 가운데 30점이 발견 직후 현장인 경주에서 1975년 8월 16일에서 17일까지 水浸과정을 거치고 동월 22일부터 29일까지 폴리메르 상태에 다시 8월 29일부터 9월 13일에 공기 중에 건조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9월에 서울의 문화재연구소에 인수되어 예비시험, 경화 및 건조처리되어 9월 25일을 전후로 한 시기에 까지 완료되었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파편간의 접합과 복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³⁵⁾ 이것이 한국 최초의 목간 보존처리였다.

가장 근년에 실시된 함안성산산성 목간이 최근의 보존처리이다. 그간 목재 보존처리의 발전에 의해 몇 가지 처리법이 있게되었는데, 목간의 경우 목간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목재 보존확인이 보다 우선시되므로 동결건조가 선호되게 되었다. 함안성산산성 2차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1. 부드러운 세척, 2. chelate화합물인 EDTA-2Na 3%수용액으로 목재내부의 금속이온과 분해산물을 제거, 3.Ethyl Alcohol로 목재내부 수분 제거, 4. T-Butanol로 알코올을 치환, 5.PEG용액으로 목재내부 조직을 강화, 6.동결건조.³⁶⁾ 목간 발굴과 보존은 보존과학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여실히 말해줌과 동시에, 30년간 보존과학의 발전 및 목간 출토의 증가와 그 인식 확대에 따라 목간 보존처리도 진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립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목간처리 경험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사이에 목간 처리 능력에는 편차가 큰 실정이다. 동결건조기나 적외선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가 고루 갖춰진 기관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어서 목간이 출토되더라도 이들 장비구비 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보존처리나 촬영을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금후 현장에서 목간발굴시 국가기관에서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보존처리와 촬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목간 적외선 사진 촬영

1975년 안압지 목간의 경우 보고서 작성시까지도 적외선 사진이 촬영되는 일은 없었다. 목간에 적외선 사진이 도입되게 되는 것은 하남 이성산성 때부터이다. 당시 국내에 적외선 카메라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외국 주로 일본에서 촬영하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1999년 궁남지 목간 단계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적외선 필름을 외국에서 입수하고 또 인화 역시 외국에 의뢰해야 하는 번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궁남지 단계를 전후하여 국립기관을 중심으로 적외선 카메라 장비를 탑재하게 되

34) (국립박물관) 『관보』 1.(1946년12월)에 당시 김재원 국립박물관장이 작성한 후기에는 국내에서 보존처리능력이 없어 유물이 손상되어 감을 한탄하는 대목이 보인다.

35) 지건길 「가. 목간(보존과학적 고찰 - 2 보존과학적 처리)」 『안압지』 1978년, p433

36) 양석진 「가. 목간의 보존처리(함안성산산성출토 목재유물의 보존처리 - 2목재유물의 보존처리)」 『함안성산산성』 2004년, pp476-478.

었다. 원래 국립문화재연구소나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중앙기관에만 적외선 카메라가 보유되어 있었다. 목간의 출토와 처리를 당면하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등이 착착 적외선 카메라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기관별로 근년 촬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촬영의 진보를 이루어 가고 있다.

근년에는 따로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로 촬영하여 컴퓨터에 직접 영상을 저장하고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실 카메라 전담자와 함께 촬영한 경험이 있다. 기존 기관에서 발굴 혹은 의뢰받은 목간을 촬영할 경우, 보존과학실의 담당 보존과학자가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문자의 이해나 목간의 이해 등 제반 문제로 비추어 보아 보존과학자가 단독으로 찍는 것보다는 목간학자가 단독으로 혹은 함께 찍는 것이 매우 기능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두고자 한다. 또한 사진은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또 적외선의 투시법에 따라 천양지차의 결과물을 남긴다.

참고로 이 방면에 깊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일본 특히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경우는 목간학자 혹은 문자자료학자 전용의 적외선카메라가 있어 촬영은 보존과학자가 아니라 목간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도면 작성 역시 관계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촬영자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 양질의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정된 지면밖에 허용하지 않아 촬영된 사진을 모두 실지 못한다. 이는 근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와 같이 pdf로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는 3만7천화소의 고화질 촬영에 성공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적외선 사진에 대한 언급없이 목간 발굴 및 연구 30년을 회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외선 사진의 기여는 가히 절대적이다. 동시에 향후 목간 발굴 및 연구 역시 적외선 사진 기술의 진보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이를 위해 상급기관에서는 광학기술에 걸맞게 국립 각 기관 노후화된 장비 교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고정용 적외선 카메라 외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촬영할 수 있는 휴대용 적외선 카메라의 비치 역시 중요하다.

3. 목간 전시 30년

발굴된 목간의 일반 공개를 위해 박물관 혹은 전시관에서 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목간에 대한 특별전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는 국내에서 목간의 위상이나 인지도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안압지 목간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상설 전시에서 줄곧 목간을 전시해왔던 것이 국내에서는 목간 전시의 최초라 할 것이다. 목간이 전시실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흑화가 진전되어 문자는 육

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뿐 더러, 검은 나무조각은 근년에 있어서까지 박물관 일반에서는 전시우선대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특별전시에 목간이 올라가게 된 것은 2000년 9월이었다. 국립청주박물관이 2000년 청주인쇄출판박람회를 기념한 특별전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전에서 안압지 목간 8점, 익산미륵사지 목간 2점, 하남이성산성 목간 6점이 전시 혹은 게재되었다. 목간은 비록 전시되지 않았지만, 1997년에 부산시립 박물관 북천분관에서는 “유물에 새겨진 고대문자”전이 열렸는데, 2000년 목간 전시는 이같은 문자 자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뒤 이어 2002년 9월에는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이 동시에 각각 “문자로 본 신라”, “백제의 문자”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 주목받기 시작한 문자자료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석비, 금문, 인각와, 명문전, 탁본류와 함께 진열장에 등장하였다. 이는 이 시기 문자자료의 인식 재고에 힘입은 바 큰 것이었으며, 진열 대상 목간은 각각 신라의 목간과 백제의 목간이었다. 물론 목간이 전부 갖춰져 전시된 것이 아니었으며 목간이 전시의 메인은 아니었지만, 목간 전시사상 의미깊다.

이후 목간 전시법은 진화를 보여 2006년 10월 국립박물관 용산이전 재개관과 함께 금석문실에 국내 각종 목간의 복제품이 전시되었다. 이것이 국내 최초의 본격 목간 복제 전시였다.³⁷⁾ 이외 함안박물관에서도 성산산성 목간 복제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또 2006년에는 한양대박물관에서 이성산성 특별전 개최와 함께 이성산성 목간이 특별 전시되었고 자리를 옮겨 현재는 개관한 하남역사박물관에서 계속 전시되고 있다. 모두 진품 전시이다. 아울러 국내출토 목간은 아니나 일본 평성경 출토 발해관련 목간 복제품 4점이 국립중앙박물관 발해실에 상설 전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양면에 글자가 있는 경우 뒷면도 볼 수 있도록 유리를 이용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12월말 현재 국내출토 목간의 수장 혹은 전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이성산성 목간 : 일부 한양대 박물관에서 위탁 소장 혹은 전시, 일부를 경기 하남역사박물관에 대여 전시중
2. 계양산성 목간 : 선문대 박물관 소장중
3. 능산리 목간 : 국립부여박물관 소장중, 일부 국립공주박물관 전시중
4. 관북리 목간 : 일부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일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37) 실은 이보다 앞서 함안박물관 상설실에서 함안성산산성 목간 복제 전시가 2006년 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성산목간 복제 재료와 방법은 전적으로 당시 금석문실 코디네이터였던 필자가 함안박물관에 제공한 것이며, 함안박물관은 국립박물관 금석문실의 자료에 입각하여 동일한 복제대상을 카피 복제 전시한 것이다. 국립박물관 금석문실의 목간 복제 사업은 이미 2004년부터 추진된 것이었다. 고로 오리지널은 국립박물관 금석문실에 있다.

5. 쌍북리 목간 : 충남대 박물관 소장
6. 익산 미륵사지 목간 : 익산미륵사지 전시관 위탁 전시중
7. 안압지 목간 및 경주박물관 부지 목간 :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일부 안압지관 전시중
8. 월성해자 목간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9. 황남동 목간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위탁 소장
10. 성산산성 목간 : 일부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일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소장
11. 김해봉황동 목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석문실 전시중
12. 신안해저인양 목간 : 다수 국립해양전시관 전시,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신안실 전시, 소장

요컨대 목간의 전시는 근년인 2002년 이후 주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전시법 또한 진화증이라 할 수 있다. 아직 한국 목간의 특별전이 개최된 적이 없는데, 이것이 목간의 사회적 위상 혹은 전시업계에서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이는 목간 연구와 인식의 부족, 장비 및 예산 부족 등의 문제와 맞물린 면이 크다. 아울러 목간연구자들이 목간의 중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지 못한 점에 대한 자성할 필요가 있다.

4. 장기전시에 대한 제고와 복제품 제작

카본성분의 먹이 묻혀진 나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장기간의 상설 전시는 좋지 않다. 상설전시는 복제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정된 기간에 특별전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귀속 후에 관리는 박물관이 하고 위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탁받은 유물을 위탁기관이 다시 제3의 기관에 대여하는 것은 목간의 경우에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1달 이상의 장기 전시에 있어서는 복제품을 원칙으로 하는 규칙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문서류나 서화류 같은 것은 3개월 이상 전시않는 것이 상식이다. 서화류보다 목서의 안착이 더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목간 역시 목제품이 아니라 문서류로서 취급하는 인식이 절실하다. 공개 역시 일본의 정창원전과 같이 일년에 한정된 짧은 기간에만 일반에 공개되는 전시가 필요하다. 대체 전시품으로서 복제 제작은 필수이다.

국내에서 목간 복제가 이루어진 것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서이다. 처음 금석문실에서 함안 성산산성 목간, 경주 월성해자 목간, 황남동 목간, 김해 봉황동 목간, 부여 능산리 목간, 궁남지 목간 등 30여점이 제작되었다. 이어 함안박물관에서도 성산산성 목간이 복제되었으며, 국립부여박물관에서도 백제 목간이 일부 복제 제작되었다³⁸⁾.

38) 국내 최초의 목간 복제에는 필자가 깊이 관여하였다. 당초 2006년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재

5. 언론의 기여와 목간의 대중화

목간 발굴 30년을 회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론의 기여이다. 1999년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목간에 대한 연구 고찰적, 시사적 및 홍보적 보도³⁹⁾등 신문매체의 노고가 있어왔다. 목간 1점을 소재로 한 역사물 제작 방영⁴⁰⁾에서 시작하여, 국영 텔레비전 저녁 정규 뉴스시간에 크게 소개된 논어 목간에 대한 보도⁴¹⁾를 거쳐, 급기야 목간이 유력 방송 중심 고대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등장하기에 이르렀다⁴²⁾. 이들은 발굴에 대한 선전과 목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 점에서 그 공헌이 크다. 또한 때로는 압력, 때로는 후원이 되어서 발굴이나 학회 등 관계기관의 목간 관련 사업 추진에 동인이 되어온 점 또한 목간 30년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사계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언론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까다로운 존재다. 대중매체 보도에는 순작용과 역작용이 공존한다. 순작용을 극대화하고 상호공존을 위해 친절하고 올바른 보도자료 작성과 함께 사회 일반의 눈에서 보는 목간의 발굴 연구에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목간학에 있어 고고발굴기관의 비중을 감안할 때 이 점은 중시해야 한다. 목간의 대중화, 대중화를 바탕으로 한 목간학, 목간고고학의 발전이라는 상승작용이 필요하다.

개관 준비시 금석문실의 코디네이팅은 필자가 담당하였다. 목간 복제의 제안 및 복제 목록 선정은 필자에 의한 것이었다. 당초 국내에 목간복제 전문업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목간이 그 전에 복제된 적이 없었으므로 목간복제에 노하우를 가진 업체는 없었다.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히라카와 선생님의 교시에 힘입어 복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목간 복제에는 제작 과정 전반에 업체에 목간연구자의 세심한 지도와 검수가 필요하다. 복제 해당 목간의 철저한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후 복제가 이루어진 함안박물관이나 국립부여박물관의 복제 목록은 당초 필자가 선정한 복제목록과 중복되는 것이다.

39) 1999년 5월 15일자 성산산성 목간 보도, 2000년 1월 10일자 “전면 재판독 시급한 안압지 목간”에서부터 2004년 5월 3일자 “능산리 백제목간, 이두체 시가 아닌 연승용” 등 다수 『연합뉴스』(김태식)의 보도는 국내 발굴과 조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으며, 『한겨레』 2004년 2월 24일자 “6세기 신라 색인용 목조각 첫 확인”, 동 3월 14일자 “남근형 백제 목간은 일본 고대 도성제 원형”(노형석), 2006년 4월 25일자 “백제시대 약재 병세 기록” 『문화일보』(최영창), 2003년 7월 17일자 “1500년전 부여 노래, 이두로 되살아났다” 『조선일보』(이선민), 2006년 12월 1일자 “통일신라시대에도 떡배 있었다” 『조선일보』(신형준) 등 또한 발굴 및 연구 성과의 홍보에 공헌한 바 크다. 이외에도 지방지, 특수지, 잡지에도 목간 관련 기사가 다수 있으나 열거는 생략한다.

40) 2001년 6월 23일 방영 “사비성 목간 31자의 비밀” KBS 역사스페셜

41) KBS 2005년 6월 28일자 “4세기경 목간 발굴(계양산성, 한성백제 최고 논어목간 출토)” [1분 28초](박일중)

42) 2006년 방영 MBC-HD특별기획드라마 <주몽>에서는 예를 들면 ‘금와는 연타발이 보낸 목간 속에 섞인 해모수가 보낸 목간을 읽게 된다.’는 장면(10회) 등 목간이 소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V. 목간연구에 있어 고고학의 역할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목간 발굴 30년을 고고 및 주변의 관점에서 돌이켜 보았다. 고고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연구는 목간 연구의 근간이 된다. 즉 발굴,수습,정리,조사 및 정보 공개의 과정은 고스란히 현장의 몫이다. 즉 목간 연구를 지탱하여 온 데 있어 고고학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다. 목간 발굴은 해마다 늘고 있다. 출토점수의 양적인 증가는 근년에 들어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발굴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에 현장에 거는 기대를 다음 몇 가지로 표현하고 싶다. 이는 일종의 자기결의·확인일 수도 있다.

1. 신속한 발굴보고서의 작성 -정보 공개의 의의와 책무-

보고서는 신속하게 나오는 것이 생명이다⁴³⁾.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진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목간에 대한 적외선 및 칼라 사진 자료와 출토상황 및 유구 전체 속에서 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 자체가 이미 학계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다. 이같은 보고는 신속하면 신속할 수록 그 가치가 있다.

발굴보고서의 지체는 추측성 연구 등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연구를 재생산하는 온상이 되므로 그 폐해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적을 일괄로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는 목간을 중심으로 얇은 약보고서를 먼저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남지의 경우가 좋은 모범이 된다⁴⁴⁾.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기사의 학예 문화란이나 발굴기간의 월보, 년보, 신문 등 출판물에 발굴기관에서 칼럼을 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같은 속보를 통해 얻어진 학계의 의견이나 현장 방문학자들의 의견 청취는 정식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고서의 경우는 충실한 사진자료와 발굴상황, 성분 분석으로도 충분하다. 심지어는 기본 관독문 혹은 연구를 실지 않더라도 좋다. 성산산성 2차 보고서가 좋은 예가 된다⁴⁵⁾. 근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발굴현장에서 대민 서비스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악습은 조속히 없애야한다. 발굴담당자가 보고서를 미루고 개인의 논문으로 여러차례 발표하는 관행이다.

2. 출토지 예측과 발견시 응급조치 수칙

43) 고고자료의 하나인 목간 자료는 공표 공개 활용되어야 한다. 고고자료는 학술연구 자료 자체의 본질에 입각해서 그 대상자료는 사회전체의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존,공개,활용의 의무가 있다.

44) 최명식,김용민 「부여궁남지 내부 발굴조사 개보」 『한국상고사학보』 21,1995년1월. 1995년 발굴 목간을 즉시 보고 공표하였다.

45)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 성산산성Ⅱ』 2004년.

모든 발굴현장에서 목간에 출토될 확률이 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6세기 이후 삼국시대의 왕도 즉, 경주, 부여, 공주 그리고 지방의 중요 행정 혹은 군사 거점 예를 들어 산성, 소경이나 별도(別都) 등에서는 목간 출토 확률이 높다. 현장에서 발굴 스텝은 열이면 열 고고발굴 담당자들이다. 목간에 대한 관심이나 처리에 대해 인식이 엷을 수 있다. 이에 목간 발견시에는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목간 발견과 동시에 즉시 영상자료를 남겨야 한다. 칼라 사진은 비데오 촬영이 매우 유효하다. 물론 휴대용 적외선 카메라가 있다면 더욱 좋다. 사진은 글자에 대한 부분을 풀샷과 상세샷으로 찍고, 글자가 없는 부분도 담아야 한다. 다음 특이사항에 대한 메모, 정확한 위치의 파악이 필요하다. 신속히 수습하여 증류수가 담긴 밀폐된 박스에 넣어 보관해두어야 한다. 동시에 목제담당 보존과학자와 목간 전문가에게 긴급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조치가 끝나면 여유를 갖고 공반유물을 관찰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목간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마자 흑화되어 버린다. 흑화 직전에는 원래의 모습을 캐취할 수 있다. 이같은 일련의 응급조치는 발견과 동시에 순식간에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응급조치가 이뤄진다면, 목간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현장에서는 카본성분의 먹이 있는 목제라는 점, 글자가 있다는 점의 특수성을 중시하여 다른 유물과 차별적으로 목간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한다. 즉 현장에서의 인식과 응급처치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

3. 현장과의 대화

위의 두 가지가 현장에 대한 메세지라고 한다면, 반대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현장을 활용하는 측에 대한 메세지도 있다. 목간 연구자의 다수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문헌 혹은 타분야 연구자들이 많다. 현장은 현장 나름대로의 고충과 특수성이 존재한다. 현장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 내고 싶은 만큼, 현장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관습에 협조하며 현장과의 약속을 준수하며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늘 현장에 대해 그 노고에 감사하며 자세를 낮추어 예의를 지키면서 눈앞의 작은 연구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가는 정신 또한 중요하다.

에필로그

현장에서 목간 발굴의 여부는 오로지 현장 담당자의 손에 달려 있다. 현장의 눈에 의해 단순한 목제품이나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역사를 바꾸는 목간이 되기도 할 것이다.

[부기] 원래 고고학만으로 따로 목간연구 30년을 정리하기는 어렵다. 목간연구가 분업화를 이룰 만큼 진전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며, 실령 목간 연구를 고고학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문헌적인 연구를 모두 응당 나열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이를 할애한 것은 심포지엄 전체체제상 후보론 선생의 기초강연“한국목간연구의 현황과 전망”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상의 이유에 기한 것임을 밝히며 이에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본고 작성중 보존처리와 목재와 관련하여 이용희(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선생의 교시를 받았다. 특기해둔다.